

피폭체험 계승으로 한일 연대 히로시마-대구 교류단체 결성

[대구(한국) 구와지마 미호 (桑島美帆)]

시민단체 ‘핵무기 폐절과 평화로운 세계 실현을 지향하는 대구와 히로시마의 시민모임’이 19일 결성되었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모임 히로시마지부’와 대구의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경지부’가 같은 날, 대구 시내 호텔에서 협의. 피폭체험 계승과 핵무기 폐절 운동을 벌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교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히로시마의 관계자 14명과 현지 피폭자 22명이 참가. 대경지부의 한판계(韓板介)[82세] 지부장과 히로시마지부의 나카다니 에쓰코(中谷悦子, 69세, 하쓰카이치시) 지부장이 악수를 나누었다. 한 지부장은 “지금 한일 관계는 좋지 않으나, 피폭자에게 국경은 없다. 함께 핵무기 폐절을 위해 행동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인사했다. 나카다니 지부장도 “히로시마에 와서 귀국 후의 체험을 포함해서 증언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응했다.

1972년부터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해 온 도요나가 게이사부로(豊永恵三郎)[83세] 씨는 피폭자건강수당 취득과 도일치료의 경위를 소개. 돌아가신 한국원폭피해자 분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일한국인피폭자인 이종근(李鐘根)[89세] 씨도 자신의 피폭체험을 이야기했다.

4세 때, 히로시마 시내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김성운(金成云)[77세]는 “더 빨리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했었다. 젊은 사람들도 불려서 같이 평화를 위해 힘닿는 데까지 주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며 힘주어 이야기했다.

(번역; 안금주)

※()은 번역자가 삽입한 것임.